



# 포천양수발전소 부지 보상액 50억 입금

28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보상' 감사예배

강우정 이사장

“이 돈을 쓰기 위해 엄청난  
고생과 인내 각오해야 할 것”

포천양수발전소 부지 토지보상액 50억(49억 8천 1백 52만 2천 5백만원)이 6월28일 우리 대학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산 399번지 일대의 우리 땅 17만 3천 평의 땅값이다.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는 축복의 자금이다. 실제 대금은 정부의 토지보상 업무 담당 기관인 한국부동산원(前 감정원)으로부터 학교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법인에서는 이를 즉시 2곳의 금융기관에 나누어 예치하였다.

28일 오후 4시 밀알관 고승태홀에서 전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보상' 감사예배를 드렸다. 입금된 지 2시간 만이다. 교목실장 강규성 목사(부총장)의 사회로 모두가 찬송가 588장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였네...'를 힘차게 합창하였다. 최욱열 목사(입학·학업지속지원본부장)의 감격에 찬 감사의 기도에 이어 사회자가 시편 136편의 한 소절을 읽으면 참석자 전원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교송

(交誦)이 고승태홀의 높은 천정에 메아리쳤다.

강우정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돈을 얻기 위해 우리는 수고를 하지 않았지만 이 돈을 쓰기 위해 갈멜관 증축 등 우리는 엄청난 수고와 고생과 인내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예배는 최정권 총장의 축도로 마무리되었으며 이어 축하 케익커팅이 있었다. 커팅에는 이사장, 총장, 대학원장을 비롯한 교수, 교직원, 학생 대표가 같이 하였다.

정부의 포천양수발전소 건설 계획은 2019년 5월에 확정되어 진행돼왔는데 5년만인 지난 4월 1일 사업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수원)가 땅을 매입하겠다는 의향서를 보내 왔고 (코코스 2024년 3월호 8면 참조) 그 후 불과 3개월 만에 보상금이 입금되었다.



리니셜교

## 누가 탕자인가? (롬 16: 1~16 절)

김웅기 목사(성서학과)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첫째는 모범생, 둘째는 망나니였다. 둘째는 어려서 유산을 미리 물려 받고 먼 고향에 가서 다 허비하였다. 그는 아버지에게 근심의 근원이었는데 빈털터리로 돌아와서 자신이 잘못 살았음을 회개하였다. 아버지는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다.

첫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다가 잔치 소리를 들었다. 망나니 동생이 왔다고 잔치 베푸는 것에, 자신은 그토록 수고했는데 아버지가 알아주지 않은 것이 화가 났고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였다.

첫째가 말했다. “아버지, 저는 들과 밭에서 열심히 일했고, 아버지 속을 썩인 일이 없는데,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잡아주신 적이 있습니

까? 그런데 어째서 창녀와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십니까?”

아버지가 말했다. “야야, 그 아이는 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네 동생이란다.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살아 돌아왔는데, 기뻐해야 하지 않겠니?” 큰아들은 그 이야기에 자신을 반성하거나 회개하지 않았다. 누가 탕자인가? 슬픔에 빠졌던 아버지를 기쁘게 한 둘째 아들인가? 기뻐하던 아버지를 슬프게 한 첫째 아들인가?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아흔아홉보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 한 사람을 더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2024 대학혁신지원사업』 보고서 제출

미래융합형 인재 양성 등 ...  
'우수' 평가 기대감

우리 대학 혁신사업단은 6월 14일 『2023-2024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이하 성과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였다. 성과보고서의 주안점은 미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도록 교육과정을 혁신하고 학과 간 벽을 허물어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 확대와 적극적인 참여를 돕는 지원책 강구를 요구하고 있다. 또 일관성 있는 혁신사업의 지속을 가능케 하는 성과관리체계를 원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 우리 대학은 이 같은 교육부의 가이드 라인을 잘 충족하고 있다. AI융합학부의 신설을 통해 미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큰 틀을 마련하였으며 학우들의 전공 선택의 문턱도 크게 낮추었다. AI 융합학부는 입학정원이 55명이며 3개의 학과가 있는데 무전공으로 입학하여 본인이 자유로 학과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3개 학과 중 AI휴먼서비스융합학과는 AI와 성서, AI와 사회복지, AI와 영유아보육 등 우리 대학 기존 학과와 연계된 융합형 인재 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

복수전공 및 전과 요건도 복수전공 학점을 51학점에서 42학점으로 대폭 낮추고 신청 자격도 3.0에서 2.0로 완화하였다. 교육과정 혁신은 AI융합학부의 개방형 교과과정 외에 '핵심 역량기반 교양교육 과정' 재구조화로 4개 영역 (기독교 인성, 기초소양, 디지털테크놀로지, 진로 탐색)을 설정, 새 교과목도 개발하였다. 특히 기독교 인성 영역을 강화하여 전도 훈련, 사회봉사 등을 신설 혹은 개편, 양보와 타협 없는 신앙교육과 훈련 지속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는 또 우리 대학의 체계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 성과관리 업무는 전략기획실과 혁신사업단, 평가감사실, 성과관리실 등 4개의 부서가 담당한다. 전략기획실은 대학 비전 및 목표제시와 관련된 업무의 성과관리를 수행하고, 혁신사업단은 대학혁신사업 추진 및 자체평가 업무, 평가감사실은 대학성과평가와 대학자체평가, 그리고 성과관리실은 전반적인 성과관리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4개 부서는 부서별 자체성과평가위원회가 있어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담보하고 있다.

교육부(주관기관:한국연구재단)는 각 대학의 성과보고서를 상중하로 평가하여 24년도 재정지원액을 결정한다. 결과는 7월 말, 8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 조윤경 교수 (영보) 1 천만 원 후원

조윤경(영보)교수가 정년퇴임(퇴임 예배 5월29일)을 감사하며 학교에 발전기금 1천만 원을 후원했다. 조 교수는 “귀한 성서대학에서 지체들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다. 그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기대면서 시절을 따라 돕는 은혜로 매 순간 충만할 수 있어 감사하다. 학과와 공동체 모두가 강건하고 은혜롭게 성장하기를 기도 하겠다”고 말했다.

## “좋은 그리스도인과의 만남 좋은 책 많이 읽고 ...”

최정권 총장 권면  
1 학기 종강예배

1학기 종강예배가 14일 로고스홀에서 진행 되었다.

최정권 총장은 이번 학기에 최선을 다한 학우 모두를 격려하고 방학 중에는 “좋은 그리스도인과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좋은 책을 많이 읽어 내면을 채워 가라”고 권면하였다.

이에 앞서 강규성 교목실장이 ‘하나님의 말씀’(삼상 30:6)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하면서도 슬픈 왕이었다. 사울에게 쫓기고 부하로부터도 외면받는 급박한 처지에서 여호와께 의지하여 용기와 힘을 얻는다. 우리도 다급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하나님께 의지하여 새 힘을 얻는 학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채경훈 총학 회장이 “성서공동체 안에서 주님께 기도와 찬양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학문과 기술이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쓰임 받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다.

## 2024 KBU 임팩트 봉사단 발대식

“주님의 사랑을 전할 의지가 출발점”



발대식을 마친 후 만나보리 광장에 모인  
2024 KBU 임팩트 봉사단원들

올해 우리 대학 ‘봉사의 해’에 발맞춰 지역사회임팩트봉사단(단장 한진호)이 주관한 ‘2024 KBU 임팩트 봉사단 발대식’이 27일 오후 브니엘홀에서 진행되었다.

국내 봉사단은 7월 16일부터 3일간 제주도에서 청소년 대상 멘토링과 제주 바다 환경 보호 활동을 한다. 해외봉사단은 태국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한국어 등 교육 봉사를 할 예정이며 8월 5일~9일까지 5일간이다.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대사협)가 주최하는 제46기 WFK(World Friends Korea) 해외 청년봉사단 공모에는 우리 대학에서 2명이 선발되어 오는 7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네팔과 몽골에서 교육 및 특화 봉사에 참여한다. 이번 대사협 WFK 봉사단에는 전국 78개 대학에서 165명이 선발되었다.

발대식에서 최정권 총장은 “봉사의 본질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누고 전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흔들림 없이 본질을 지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 ▲ 국내 봉사

- 일자 : 7월16일~18일 (3일간), 참가자 12명
- 내용 : 청소년 멘토링 및 제주 바다 환경 보호
- 지역 : 제주 애월읍 일원의 지역 청소년 대상 / 리스텝 미니스트리와 연합

### ▲ 해외 봉사

- 일자 : 8월 5일~9일, 참가자 11명
- 내용 : 한국어, 중국어 교육 봉사 및 지역 환경 보호 작업
- 지역 : 태국 치앙라이 니란학원 일원의 초중고 및 대학생 100여 명 대상

### ▲ 대사협 하계 WFK 청년봉사단

- 일자 : 7월 22일~8월 3일, 2명
- 내용 : 네팔과 몽골에서 교육 및 특화 봉사에 참여
- 지역 : 네팔 RFCSID&SMKB 특수학교 / 몽골 꿈나무센터 아동 및 청소년 대상

## 우리대학 영유아보육학과 ‘유보통합’ 계획에 발 빠른 행보

장현진 학과장  
“영유아통합교원 자격,  
양성체제 개편”에 선제적 대응

교육부가 유보통합실행계획을 지난 27일 발표하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된 ‘(가칭)영유아학교’는 이르면 2026년 운영을 시작한다. 정부의 ‘영유아통합 교원 자격 양성체제 개편’에 대비하여 영유아보육학과(학과장 장현진)는 여러 가능성을 두고 그동안 준비해 왔으며 이 같은 변화에 발 빠른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장현진 학과장은 “우리 학과는 유치원 정교사와 보육교사를 모두 배출하는 4년제 대학으로서, 유보통합에 대비해 통합교사 자격취득에 필수 과목으로 요구될 교직과정을 학부와 대학원에 이미 개설 운영 중”이라고 자신감 있게 말했다. 장 교수는 또 “올해 초 보육대학원을 교육대학원으로 개편하였으며, 학과와 교육대학원 모두 통합자격취득에 유리하도록 교육과정을 변경, 반영하고 있다. 또한 통합 교원 자격 개편 시 양성정원 승인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교육부의 6주기 교원양성 기관 역량진단까지 학과 교수들과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사학위를 소지한 현직 교사들은 교육대학원에서 교직교과목과 전공과목을 이수할 경우 통합 자격 취득과 원감, 원장 등의 관리자로서의 진로가 용이해 질 것으로 보여, 본교 교육대학원의 수요가 앞으로 10년간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교육부의 유보통합에 따른 통합교사 자격과 교원양성교육과정, 학과 개편 및 양성정원규모는 2024년 연말에 확정안이 나올 전망이다. 2026년 통합교사 자격 도입에 따라 관련학과는 가칭 영유아교육과로 개편되고, 학과 졸업자가 영유아학교에서 근무한다는게 주요 골자이다.

## 1 학기 교직원 연수회

최정권 총장  
“성서학과는 우리의 큰 자랑”

교직원 연수회가 24일 갈멜관 305호에서 진행되었다. 최정권 총장은 1학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고 헌신적으로 수고해 준 교수와 직원에게 감사사를 전했다. 그는 취임 후 전공 교수와 개별 만남을 통해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며, 방학 기간에는 부서별로 직원과 모임으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대학의 강점은 ‘인 서울’이라는 지리적 요인, 탄탄한 행정력을 갖춘 교직원의 존재 그리고 성서학과의 존재라고 지적하고 공동체 모두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권면하였다.

이에 앞서 강규성 대학혁신사업단장이 2023년도 대학혁신사업 연차 평가 보고, 김덕현 과장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김종완 본부장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진행됐다. 이어 교수 및 직원회의가 별도로 열려 소통을 이어갔다.



김덕현 과장이 개인 정보 보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최정권 총장 각 구성원 그룹과 소통 행보 활발

지역 목회자들과의 만남도 계획



최정권 총장이 도서관 라운지에서 교직원들과 담화중이다.

3월 취임한 최정권 총장은 학내 구성원들과 활발한 만남을 진행하고 있다. 직원과의 만남은 시설팀을 시작으로 NSLB 교육지원단과 소통하였으며 6월 30일까지 6개 그룹(1~5개팀)과 미팅을 가질 예정이고 2개 팀은 7월에 갖는다. 지난 25일에는 교학팀(팀장 유미나)을 방문 어려운 환경에도 업무 향상에 최선을 다해 준 팀원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고충도 듣고 학교 발전 방안 등을 청취하였다.

이에 앞서 최 총장은 지난 3월~4월 2개월 동안 모든 전임 교수의 개인 연구실을 방문하여 기도회를 가진 후 강의환경을 비롯한 여러 문제를 주의 깊게 들었다. 학우와의 만남도 있었는데 드림 총학(회장 채경훈) 임원진 21명(5월29일), 외국인 유학생 14명(6월7일)을 총장실로 초청, 오찬을 나누었고, 특히 만학도들과는 외부에서 자리를 같이하여 학업 여건과 학사 고민등을 들었다.

최 총장의 소통 행보는 앞으로 노원지역, 도봉지역과 의정부 내 주요 목회자와의 만남도 계획하고 있다.

## 팀장 워크숍 포천일알훈련센터에서 진행

‘작고 아름답고 강한 대학’을  
견고히 세워가자



권경만 전략기획실장이 팀장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팀장 워크숍이 7월 1~2일까지 포천일알훈련센터에서 진행되었다. 팀장들은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발표와 토론을 이어 갔으며 공동체 단합을 위한 친교의 시간도 가졌다.

권경만 전략기획실장은 ‘한국성서대학교의 생존을 위한 팀장의 역할 모색’을 주제로 공동체 의식과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토론을 이끌었고, 최육렬 입학학업지속지원본부장은 ‘대입제도 현황과 본교 입시 현황’으로 당면한 입학자원의 현실과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장성희 성과관리팀장은 앞으로의 대학 평가는 어떻게 성과를 관리하고, 환류하느냐를 중점적으로 보게 된다고 전제하고 우리 대학의 ‘2024 KBU KPI’를 중심으로 성과관리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 권순범 평가팀장은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 기준 (확정안)’을 설명하였고, 김중완 행정본부장은 ‘KBU 재정진단과 예결산 및 재정현황’을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최정권 총장은 인사에서 “우리 대학 팀장들의 탁월한 역량, 학교에 대한 열정, 단단한 믿음으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최상급의 성과를 내 왔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 일립생활관 내부 시설개선

최수일, 장순복 후원자의 헌금으로  
침대, 소파등 가구와 화장실 시설 교체



병커침대 자료용 사진

일립생활관 내부 시설개선 공사가 방학기간 내내 진행된다.

이번 시설개선 공사는 지난해 11월과 올 2월에 최수일, 장순복 후원자가 “학우들이 생활하고 있는 일립생활관의 시설 교체에 사용해 달라며 후원해 준 거금 1억 5천만 원을 기반으로 가능하게 됐다.

1층 남녀 화장실과 샤워실 내부의 낡은 변기, 수전 및 샤워 시설 등이 모두 산뜻한 최신형 제품으로 교체된다. 이와 함께 일립관 준공 당시부터 배치돼 사용해 온 낡은 철제형 2층 침대도 바뀐다. 학우들의 개인 성향이 반영된 책걸상, 침대, 수납함과 옷장이 모두 일체화된 1인용 병커 침대형 제품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층 생활관 내부의 각 방과 복도 전체가 산뜻한 색상의 페인트로 새롭게 단장 된다. 2층과 3층라운지의 소파까지 MZ세대의 개성을 반영한 제품이 배치될 예정이다.

조철남 부관장은 시설개선 이후 학우들의 일립생활관 내 생활 만족도가 부쩍 높아질 것이라며 희망을 나타냈다.

## 주차장 입구, 세로형 간판 새롭게 단장



학교 주차장 입구에 세워진 입간판

주차장 입구의 세로형 학교 간판이 새롭게 단장 되었다.

간판은 도로 쪽 정면과 좌우를 포함 3면에는 오렌지 색상의 따뜻함이 담긴 필기체로 ‘한국성서대학교’가 양각으로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작고 아름답고 강한 대학’이 당당함을 보여준다.

하단에는 흰색의 ‘KBU’ 이니셜을 새겨 전체적으로는 세련되고 따뜻한 이미지를 보여 주고 있다.

## 학생 식당 운영업체 선정 (株) 정우푸드

2 학기부터  
‘신세대 메뉴로 입맛 사로잡을 것’

학생 식당 운영업체로 (株)정우푸드(대표 백태진)가 26일 선정되었다. 정우푸드는 24-2학기부터 앞으로 2년간 식당을 운영하게 된다. 정우푸드는 방학 기간에 식당 내 주방 시설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작업을 하게 된다.

백 대표는 “청결한 위생 조리환경을 기반으로 청년세대의 미각을 충족시켜 줄 메뉴로 학우들의 입맛을 사로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우푸드는 가천대, 용인대학 등 다수의 대학교와 공공 기관에 단체급식을 제공해 오고 있는 중견 케터링 업체이다.

## 「사마리안 ..」 대여 한도 700 만 원으로 상향 조정

24-3 차 이사회

24-3차 이사회가 2024년 6월 17일 오후 3시 복음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강일아 이사의 연임을 의결하였다. 교직원들의 단기 긴급자금지원을 위해 시행해 온 「사마리안 도움사업」의 1회 대여 한도를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다.

24-2차 이사회(2024년 4월18일)에서 정기 이사회를 짝수월 3째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최하기로 하였고 다음 이사회는 8월 19일(월) 오전 11시에 열린다.

## 민찬양 목사, 한일성서교회 제 3 대 담임목사 취임 10년 송사 끝에 되찾은 교회, 드디어 성전 재건

한일성서교회 제3대 담임목사 민찬양 목사의 취임감사 예배가 30일 오후 4시, 10년 송사 끝에 되찾은 교회 예배당(서울 강동구 암사동 400-5 강동현대 홈타운, 상가 2층)에서 한국성서선교회(이사장 현희철)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예배는 선교회 총무 김용호 목사의 사회로 진행 되었다. 현희철 목사는 ‘아름다운 우리교회’(딤후 1:12) 제목의 설교에서 “한일성서교회는 2014년부터 오늘까지 10년 동안 법정 싸움 끝에 다시 제단을 쌓게 되었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충성되어 여기시는 민찬양 목사를 보내셔서 이 교회가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증거하며 귀하게 쓰임 받는 주님의 처소가 되게 해 달라” 전했다.

민찬양 목사는 취임사에서 “주님이 이곳으로 불러주신 목적을 절대 잊지 않고 말씀 안에서 겸손과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고 예배가 새롭게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고 다짐하였다. 김정호(삼일성서교회), 김은호(연지교회) 목사가 권면을, 서진교(작은예수선교회) 목사가 축사를 해주었다. 강우정 이사장(한국복음주의학원)은 “민찬양 목사의 직분은 복음 전도임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민찬양 목사는 본교 성서학과와 대학원(M.Div)을 졸업, 신작교회 담임 및 교목(20~21년)을 역임하였다.



민찬양 목사가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 일립 (一粒) 강태국 박사 26 주기 추모예배

7 월 25 일( 목) 오전 11 시 로고스홀

우리 대학교 설립자 일립 강태국 박사 26주기 추모예배가 7월 25일(목) 오전 11시 밀알관 로고스홀에서 거행된다. 설교는 윤두태 목사(25회, 가성교회 담임, 동문회장)가 전하며, 기도 이병철 목사(37회, 춘천주향교회 담임, 동문회 회계) 축도는 김동관 목사(29회, 수원안디옥교회 담임, 동문회 상임회장)가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살길은 오로지 민족의 복음화라는 일념으로 교회를 세워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중심을 삼고, 복음화의 일꾼 양성을 위해 한국성서대학을 설립하여 복음전도자 양성에 평생을 바친 그의 삶을 기억하며 추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최정권 총장

## 총장의 역할

### 총장의 편지

방학에 진행될 공사를 앞둔 기숙사 내부를 살펴보고 돌아와 머리를 소파에 기대고 총장이 됐다는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총장님! 아침에 오면 벌써 주차장이 차서 차를 댈 장소가 없습니다. 심각한 주차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총장님! 창틀 사이로 부는 겨울바람으로 여긴 시베리아입니다. 이중 창문이 필요합니다”

“총장님! 식당의 질을 높여 주세요. 먹을 게 없습니다.”

“총장님! 우리도 편의점 CU나 GS 들어오게 해 주세요.”

“총장님! 국내 안식년 6개월을 1년으로 해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총장님! 다른 대학들처럼 우리 대학도 방학 기간에 출퇴근을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반영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장님!...”

어린 시절 기억에 다섯 아들을 둔 아버지의 고민은 아마도 세상 모든 아버지의 고민이었을 겁니다. 땅에 떨어져 깨진 유리창처럼 흩어진 기억의 파편을 모아 보면 아버지는 아들 다섯을 어떻게 다 교육시키나? 어떻게 굶기지 않고 먹이고 입히나? 그것이 그분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불 꺼진 소파에 앉아 입안의 담배 연기를 한숨과 함께 길게 내 쉬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특이한 것은 아버지의 그런 긴 한숨은 꼭 겨울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춥고 긴 겨울, 일감 떨어진 작은 회사 사장의 무게와 다섯 아들 가장의 무거운 짐은 겹쳐서 일어나는 현상이었을 겁니다.

총장 되었다는 건 100명 넘는 교직원과 그들 가정의 삶의 터전이 된 학교의 장이 되었다는 것이고, 1,200명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길을 먼저 걸어간 분은 자신이 맡은

첫해는 하루만 무사히 지나기를 기도하다가 어느 시점에는 오전만... 오후만... 무사히 지나기를 기도했다는 말 속에서 그가 짊어져야 했을 어깨의 무게감을 알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한 학기가 끝났습니다. 감사한 일은 제가 이 모든 짐을 혼자 지지 않았고 함께 해주신 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말없이 지켜봐 주고 때로 눈이 되고 귀가 되어 주셨고 중보기도자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기도에 힘입어 인공지능과 갈멜관 리모델링을 향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숙제도 풀려가고 있습니다. 교내 환경 개선이 이루어졌고 이번 여름에는 기숙사 개선이 이루어질 겁니다. 주차 문제도 다음 학기에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도보 확보를 위해 백병원의 주차 차량을 줄여 달라 부탁했고 주차 요금을 개선, 수를 줄여 갈 겁니다. 식당은 경험 많은 업체가 선정되었고 편의점도 유명 업체와 협상 중입니다.

풀린 숙제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하지만 총장으로 제 역할은 행정에 머무르지 않을 겁니다. 제 기도 제목은 학생들이 성령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기숙사 새벽예배와 채플에 늘 앞드려 기도하는 건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성경의 진리가 학생들의 영혼에 임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사명이 세상에 직업인을 보내는 일에 있지 않지 않듯이 총장의 사명도 행정을 넘어선 더 깊은 본질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 건의 사항은 주어진 상황과 절차에 따라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호 교수(성서학과)



진은선(사복4)

## 엑스플로(EXPLO) '74 전도대회 50주년을 맞이하며

2024 년은 엑스플로 '74 전도대회가 있는 지 50 주년 되는 뜻깊은 해이다. 대회는 1974 년 8 월 13~18 일까 지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한국 기독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회였다. 대회를 주관한 한국 대학생선교회 김준곤 목사는 평신도 전도자가 세워질 때 전 민족 복음화가 가능 하다고 확신했다. 그는 평신도를 내세워 또 다른 평신도를 세울 수 있도록 전도자를 낳는 승법번식전도법을 가슴 에 품고 대회를 개최했다. 엑스플로 '74 대회는 저녁에만 모이는 집회가 아니라 낮 동안 자원한 32 만 명의 전도요 원을 훈련 시키기 위해 숙식하게 하는 대회였다. 훈련을 위해 여의도 지역 4 만 평에 천막 5 백 개로 10 만 명과 주 변의 76 개 학교 3 천 개 교실에 22 만 명을 수용했다.

대회 기간 훈련 받은 32 만 명이 하루 420 만 명 이상에 게 전도하여 274 만 명 이상이 결신 했고 마지막 날 참석 한 65 만 명 가운데 90% 가 헌신하여 한국교회의 폭발적 인 성장의 불씨가 되었다. 대회 이후 하루에 6 개 교회가 개척되었고, 한국교회는 이때를 기점으로 매년 20% 씩 성장해 80 년 초에는 교인이 1,000 만 명에 달할 정도였다. 또한 홍정길, 김인중, 하용조, 김지철 등과 같은 한 국의 많은 복음주의 지도자를 배출했다. 대회가 '민족 복 음화' 의 선명한 기치를 내걸고 시작되었고 조직적, 체계 적인 준비와 훈련을 거쳐 개최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 다. 오늘의 한국 사회는 엑스플로 '74 개최 당시보다 경 제, 문화, 사회 시스템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 했지만, 사람들은 영적으로 빈곤할 뿐 아니라 더 우울하 고 불안감에 젖어 있다.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절대 진 리(규범)인 성경에 맞지 않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 고 있다.

우리 대학 설립자의 '민족 복음화' 꿈에서 우리 대학은 태동해 존재하고 있다. 복음의 절대 능력을 믿는 우리 대 학의 신앙교육과 훈련을 통해 복음전도자가 세워지고, 그 들이 또 다른 전도자들을 세울 때만 민족 복음화는 가능하 기에 우리 한국성서대학은 소중한 학교이다.

## 시절 인연

최근 '시절 인연' 이라는 말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 모 든 사물의 현상이 시기가 되어야 일어난다는 말을 가리키 는 뜻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에 에너지를 얻 거나 쓰며 살아간다. 그런데 가끔은 흘려보내야 할 것에 집중하느라 정작 소중한게 품고 지켜야 할 것에는 무심한 것 같다.

나는 시절 인연이라는 말을 듣고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은 꼭 만났어야 했고, 일어난 일들도 반드시 일어나야 했 었던 일이라고 생각했다. 다양한 곳에서 많은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했지만 이러한 삶의 흔적들이 모 여 지금의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 로도 내 앞길에 주어질 여러 일들 역시, 꼭 나에게 발생 되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너무 어려운 것을 붙잡으려 고 하기보단 주어진 것들, 또 일어난 일을 통해 감사함을 갖고 소소하게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려 한다. 그게 값진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1 년 후 사회로 진출하게 된다. 우리 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의 모습과 현재를 생각해봤다. 그동안 20 대 초반을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동료와 만나 지낼 수 있었 다는 현실과 인연에 감사했다. 지금과 같이 학교에서 다 양한 친구들과 만나 생활하고 지낸다는 것은 어쩌면 꼭 일어나야 할 일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한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값진 삶 의 경험을 얻으며 많이 성숙해질 수 있었다.

이제는 나아가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는 대로 생활하는 것보다 삶의 의미와 뜻을 새기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건 큰 보람이 되고 있다. 이 의미를 잘 깨닫고 있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스스로 가치가 있고 소중한 일상을 보낸다는 자긍심을 갖게 한다. 그리고 이 작은 생각과 시 간이 차곡차곡 모아졌을 때, 맞게 될 큰 결실과 비전도 그 려보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 자연스레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반세호의

목양칼럼



성서대학교교회 담임

## 아름다운 동행

저는 지난 현충일에 우리 교회 7 남전도회와 함께 강원도 춘천으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 상봉역 경춘선의 풍경은 그야말로 즐거움과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여행하면서 차창을 통해 바라본 푸르른 경치는 물론 여행길에 성도님들과 나눈 삶의 여러 이야기가 많은 배움을 안겨 준 자리였습니다.

1951년 한국전쟁 때 1.4 후퇴 과정에서 가족과 헤어진 채 11살 단신의 몸으로 남한에 건너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겪어야 했던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생생한 신앙고백이었습니다. 한 성도님의 손가락에 유독 빛나는 반지가 눈에 보였습니다. 제주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다가 지독한 가난을 벗기 위해 떠난 일본행, 그 후 해병대에서 복무한 후 월남전에 참전하기까지 누구보다도 억척같이 살아온 뜨거운 삶이 그대로 담긴 반지였습니다.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과 같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서 그려지고 있음을 배울 수 있게 한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여행길에 한 성도님께서 너무도 멋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내 평생에 가장 젊은 날입니다” 70~80년의 오랜 세월을 보낸 어른신이라고 하기에 믿기 어려울 만큼 마음과 열정이 한결같이 푸르른 청년이었습니다. 여행 중에 탑승한 시내버스가 그만 중간에 고장 나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열기를 뽐던 만원 버스가 그만 길에 멈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이것마저 여행의 즐거운 묘미라 여기며 근사한 여유를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귀한 삶과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많은 어른신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아름다운 연합과 동행을 보여주는 7 남전도회에 감사드립니다.

##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 120

### 벌레 먹은 나뭇잎 이생진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다

귀족의 손처럼  
상처 하나 없이 매끈한 것은  
어쩐지  
베풀 줄 모르는 손 같아서 밉다

떡갈나무 잎에 벌레 구멍이 뚫려  
그 구멍으로 하늘이 보이는 것은  
예쁘다

상처가 나서 예쁘다는 것은  
잘못인 줄 안다

그러나  
남을 먹어가며 살았다는 흔적은  
벌처럼 아름답다.



<https://v.daum.net/v/20230817041012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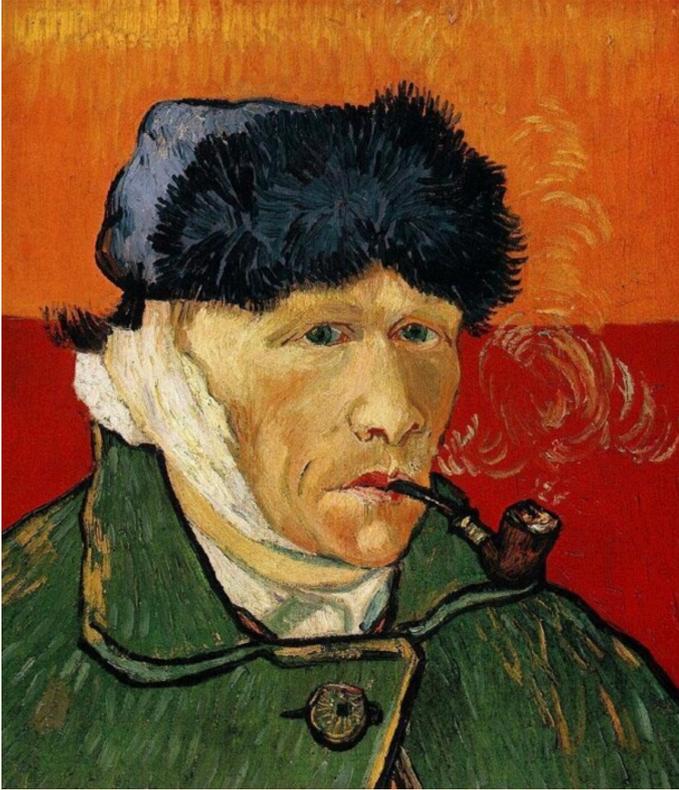
사각사각, 벌레가 나뭇잎을 먹는다. 쑥쑥 자라나는 벌레가 대견해 더 많은 자리를 내어주는 나뭇잎, 송송 뚫린 나뭇잎 구멍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들어오고 빗방울이 들어오고…… 숲은 날마다 풍성해진다.

벌레 먹은 나뭇잎, 그 상흔(傷痕)을 최병해 시인은 다음과 같이 패러디한다. “벌레 먹은 나뭇잎 함부로 밟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네 속살로 남을 먹여 살린 적이 있느냐?”<sup>1)</sup>

남을 먹어가며 살아가는 나뭇잎, 그 아름다운 상처를 올려다본다. 뚫린 구멍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눈부시다.

1) 안도현 시인의 시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밟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를 패러디

## 고흐의 두 자화상



담배 피우는 자화상 1889년



녹색 작업복의 자화상 1889년

<https://brunch.co.kr/@fort719/9>

빈센트 반 고흐는 1853년 3월 30일 1년 전 죽은 형의 생일날 태어납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자식을 잃은 슬픈 날, 다시 자식을 얻은 꼴이 된 겁니다. 어머니는 고흐를 낳는 날 일년 전 죽은 아들을 생각하고 울었을 것이고 평생 고흐를 보면서 죽은 첫 아들을 기억하며 살았을 겁니다. 이때 어머니는 기가 막힌 선택을 하는데 죽은 아들의 이름을 새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지어 빈센트 윌렘 반 고흐 (Vincent Willem van Gogh) 로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결정은 고흐의 자아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고흐는 채울 수 없는 모정의 사랑을 그가 평생 만난 4명의 여인들에게서 찾으려 노력했고 깨어진 관계 속에 불안감과 그리움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알콜 중독자가 되고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됩니다. 위의 두 자화상은 고흐가 고갱과 짧은 2개월의 공동생활이 깨진 후에 그 상처로 귀를 잘라 낸 후에 그린 자화상입니다. 그가 자살하기 전에 그린 마지막 자화상이 된 겁니다.

우리는 두 그림에서 어느 것이 먼저 그려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선 담배 피우는 자화상에서 동생 데오에게 보낸 편지의

한 문구를 생각나게 합니다. “매일 나는 디킨스의 자살 방지 처방전을 실천하고 있다. 그것은 포도주 한잔, 치즈 바른 빵 한 조각 그리고 파이프 담배 한 모금이다.” 그가 자살의 유혹과 싸우면서 이 자화상을 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배경이 붉은 색으로 채워진 이유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녹색 작업복의 자화상은 우선 배경을 살펴야 합니다. 벽에 걸린 그림과 한쪽 면만 그려진 문을 보면서 그가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벽에 걸린 그림. 이 그림은 당시 고흐를 비롯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일본 판화 작가 우키요에 (Ukiyo-e) 의 것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지금 막 그리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 캔버스가 이젤 위에 얹혀 있는 게 보입니다. 두 번째 자화상에 그려진 지금 고흐는 살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흐는 출생하면서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버거운 운명과 힘든 싸움을 하는 자신을 그린 겁니다. 고흐의 자화상은 자아의 표현이요,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고 치료받고자 하는 마지막 수단이 된 겁니다. 이 두 자화상을 통해 “나는 살고 싶다” 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유아들이 노원교통공원에서 길을 나설 때 주의사항을 교육받고 있다.



다행어린이전

### 노원교통공원 견학

13일, 만 3세 유아들과 중계역에 자리한 '노원교통공원'으로 견학을 다녀왔다. 유아들에게 안전한 보행 방법과 교통사고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법 등을 체험하는 자리였다.

현장에는 실제와 동일한 도로 환경이 널찍한 공간에 잘 조성되어 도움됐다. 실내에서 기본 안전에 대해 배우고 실외로 나가 횡단보도 안전하게 걷기 체험교육을 반복하였다. 배운 내용을 실제 몸으로 익히기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길을 나설 때마다 항상 도로 주변의 위험 요소 확인을 강조했고 신호등 이용 수칙을 비롯,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법까지 알아보았다. 지역사회와 계속 연계하여 유아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랑반 교사 송애슬]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지역 주민에게 정신건강에 대해 상담하고 있다.



월계종합사회복지관

### 열린 상담실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열린 상담실'을 운영 중이다. 접근성과 정보 부족 등의 한계를 넘어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직접 척도 검사, 정신 건강 상담과 필요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실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까지 건강관리실 1층에서 월계 1, 2동 주민 모두가 직접 방문 접수 및 사전에 상담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건강상담을 이용한 한 어르신은 "평소에 모르고 있던 나의 마음 상태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이런 상담은 생전 처음 받았다고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열린 상담을 통해 주민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굴, 스스로 정신 건강에 대해 인식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를 소망한다. [조은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유아들이 다용도 볼 만들기 기초과정을 배우고 있다.



꿈빛어린이전

### 옹기 테마공원

27일, 봉화산 옹기 테마공원으로 현장학습을 다녀왔다. 전통 옹기 가마가 복원되어 직접 관찰하고, 가마 안에 들어가 볼 수 있었다. 유아들은 킁킁하고 아늑한 공간이라 더 친근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다. 곁에서 볼 때와 다르게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서 놀라기도 하였다.

체험장에서 5세 유아들은 다용도 볼을, 6~7세 유아들은 음료용 컵을 만들었다. 직접 흙을 고르게 펴는 작업부터 형태를 빚고 물레 위에 올려 매끈하게 마무리하기까지 집중하여 완성하였다.

직접 가마에 구워 완성품이 나오기까지 두 달여가 소요된다고 하니 교실에서도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보며 작품을 기다려보기로 하였다. [백합반 박연희 교사]

초등부 성경암송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파이팅하고 있다.



성서대학교회

### 부서별 여름 행사

6월, 부서별 여름 행사를 진행하였다. 9일(주일) 청소년 1부(중등부)에서 학부모를 초청,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학부모 초청 예배를 가졌다. 초등부는 16일 상반기 연합예배 및 성경 암송대회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부서마다 넘쳐나는 아름다운 잔치였다. 7월, 교회학교 여름 사역 일정은 다음과 같다.

- △ 미취학부 7월13일~14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 △ 초등부 7월20일~21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Living life with Jesus)'
- △ 청소년부 8월4일~6일 '예수라면' (장소: 포천밀알훈련센터)
- △ 청년부 7월25일~27일 'IN\_N\_OUTBACK' 표어: 하나님 사랑으로 IN 세상의 빛으로 OUT(장소: 청주 흥덕교회) [강성훈 목사]

키즈풀에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유아들



상계백병원어린이집

### 신나는 물놀이

14일, 의정부에 자리한 키즈풀을 다녀왔다. 물놀이 시작 전, 준비운동과 안전 수칙을 듣고 물놀이를 시작하였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물장구를 치고 미끄럼틀을 타고 쏜살같이 내려와 물속에 풍덩 빠지며 온몸으로 즐거움을 느꼈다. 함께 모여 점심 식사 후 다시 실내 풋살장, 플레이존, 레이싱 트랙 등 다양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보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들은 하루동안의 체험을 말했다. “물놀이가 재미있었고 시간이 너무 짧아 아쉬웠어요.”라며 모두 밝은 표정을 지었다. 학부모들도 사진 속 아이들이 즐겁게 놀이하는 모습이 무척 보기 좋았으며 교사들의 수고에 감사함을 표현해 주었다. [푸른반 이진아 교사]

참가자들이 별자리 만화경과 사자가면 만들기 참여하고 있다.



노원역(중랑)어린이센터

### 옥상별빛축제

8일, 하계어울림센터에서 개최된 2024년 하계어울림 ‘옥상별빛축제’는 지역 주민들이 세대를 초월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으로 구성되었다. 본 센터는 ‘옥상별빛축제’ 주제와 어울리는 ‘별자리 만화경 만들기’ 코너를 기획하고 만화경에 다양한 별자리를 꾸민 후 돌려 보면서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노원구가 올해의 책으로 선정한 ‘사자 마트’ 그림책 주제 활동으로 준비한 ‘사자가면 꾸미기’ 코너에서는 어린이들이 사자가면을 꾸미고 착용한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며 보냈다.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지역 주민에게는 여름날의 소중한 추억을 새겨주는 시간이 되었다. [보육전문요원 성은경]

온누리반 유아들이 마시안 갯벌에서 졸업여행을 즐기고 있다.



상계5동어린이집

### 졸업여행

21일, 인천 마시안 갯벌로 만 5세 온누리반이 졸업여행을 다녀왔다. 조금 먼 장소였지만 아이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였다. 여행 가기 전, 바다에 사는 동물에 관심을 갖는 유아들을 위해 갯벌로 정했다. 갯벌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부드러운 갯벌의 촉감에 유아들은 즐거워하며 갯벌속 구멍을 호미로 조개를 캐기 시작했다. 그 밖에도 게, 소라, 갯지렁이 등을 보며 자연 그대로의 생생한 체험을 경험하였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현장을 보며 점심을 먹고 인천학생과학관으로 이동, 다양한 과학 체험 전시까지 관람했다. 화석, 해양생물, 로봇 전시 등을 보며 유아들은 친구들과 잊지 못할 졸업의 추억을 만들었다.

[온누리반 강혜진 교사]

유아들이 모형을 이용한 마트놀이를 즐기고 있는 모습



북사립어린이집

### 마트 행사

25일, 이색 체험을 위한 마트 행사를 진행하였다. 진행에 앞서 ‘마트 놀이’라는 주제에 흥미를 갖도록 어린이집 주변 마트, 문방구, 빵집 등을 방문만 아니라 가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건을 구입해 보는 경험도 하며 행사에 기대감을 키워갔다.

0~1세는 음식 모형, 카드, 돈, 식기 등을 탐색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었고 눈높이에 맞는 놀잇감들이 있어 알차게 진행되었다. 2~3세도 직접 구입한 경험을 떠올리며 마트 직원과 손님이 되어 놀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볼 수 있었다. 이번 마트 행사에는 행복한반 부모가 함께 참여해 주었다. [늘사랑반 김세희 교사]

www.bible.ac.kr

# 「성서대학돕기운동」 기부현황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돕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 2024년 5월 21일부터 2024년 6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예금주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 PayPal : kbiblefunds@gmail.com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Wire Transfer : Wells Fargo Bank \_ Korean bible Funds \_ Account No. : 384 048 3592 \_ Routing No. : 121 000 248
- 접수처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1층) \_ Tel. 02.950.5599, 5517 Fax. 070.4275.0161

##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                |                |              |           |
|----------------|----------------|--------------|-----------|
| 무 명            | 1억원(장학)        | 강우정, 강진(이사장) | 133만원(운영) |
| 성서대학교회(반세호 목사) | 1,896만원(운영)    | 교수부(교수상조회)   | 100만원(운영) |
| 조윤경(교수)        | 1,020만원(영보,운영) | 이레장학         | 100만원(장학) |
| (사)한국성서선교회     | 1,000만원(운영,장학) | 도서출판현문사      | 100만원(간호) |
| 최정권(총장)        | 350만원(운영)      | 세아해남학술장학재단   | 100만원(장학) |

## 약정자 명단

|                     |                 |               |          |
|---------------------|-----------------|---------------|----------|
| <b>동문 및 가족</b>      | 3구좌 김재임         | 5구좌 김병수       | 10구좌 김윤규 |
| 1구좌 구세경 금필규 김정희 백항복 | 4구좌 박주은         | 10구좌 박태수 박태용  | 10구좌 서미혜 |
| 서규원 서 응 유수정 이진경     | <b>교직원 및 가족</b> | <b>성서선교회</b>  |          |
| 조은경 탁윤석 허영숙         | 1구좌 김애란         | 3구좌 푸른동산교회    |          |
| 2구좌 김재원 이상복 이선영 허춘선 | 2구좌 윤혜진         | <b>중앙성서교회</b> |          |

## 기부자 명단

|  |   |  |   |  |
|--|---|--|---|--|
| <b>동문 및 가족</b>   | 엄보라 엄보영 연현숙 오재엽<br>옹아름 우현아 원은희 유미정<br>유소담 유수정 유영진 유주연<br>유주홍 윤영원 윤정숙 윤지준<br>윤현중 이광삼 이광석 이권호<br>이근중 이두현 이미정 이민우<br>이민화 이병주 이복희 이상용<br>이상진 이상필 이석호 이수진<br>이신재 이영식 이용원 이용철<br>이윤아 이윤주 이은광 이정숙<br>이정익 이정훈 이 진 이진경<br>이진리 이채녀 이철승 이화준<br>이해릴 이해성 이현무 이현섭<br>이현지 이화연 이환기 인지혜<br>임남연 임삼일 임은성 임은진<br>임찬웅 장윤국 장익봉 장익심<br>전명수 전명자 전미영 전보람<br>전상호 전아름 전아영 전한나<br>정나영 정다연 정선도 정영교<br>정은희 정인철 정재연 정지현<br>정진영 정혜문 정희영 조민음<br>조소연 조수빈 조승희 조영희<br>조유민 조은경 조차현 주민환<br>주성현 주영덕 주진우 지영환<br>채유신 채종원 최규봉 최서희<br>최선경 최상자 최승주 최승진<br>최윤석 최인호 최중운 최진희<br>최현정 최혜림 탁국현 하수현<br>하 진 하진우 한경순 한상장<br>한혜우 허영숙 홍선호 홍성대<br>홍정심 황예린 황형록<br>강해든이 설에스더 황보혜영<br>열매맺는교회 | 김가람 김규리 김동원 김두영<br>김미나 김미향 김민지 김복녀<br>김성훈 김수아 김연정 김영래<br>김영태 김예겸 김용길 김원미<br>김우경 김은하 김인화 김재원<br>김정복 김중재 김지원 류충열<br>박상수 박성주 박재송 박주영<br>박혜숙 소경숙 송만호 송인성<br>신정섭 신화영 안선례 오현주<br>유익숙 윤광길 이기주 이나연<br>이마리 이상복 이선영 이영애<br>이유미 이은애 이의선 이재은<br>이종임 이종희 이현우 임은영<br>임은희 임주영 장유정 장은경<br>장재원 전영희 정복자 정성민<br>정영용 정옥순 정 완 조소정<br>조용희 조은별 지다은 최가현<br>최선옥 최수지 최인경 최혜진<br>추하은 탁명화 탁윤석 하지혜<br>허춘선 홍진옥 황혜주 황승호<br>황인숙 등대교회 | 양연주 유양숙 이병철 이부호<br>이유나 이정균 이지은 최경환<br>최송희 가학교회<br>생명의빛교회 성서밀알선교회<br>세빛교회 월계지역아동센터<br>화도드림교회 | 6만원 정동주<br>10만원 김동관 김선옥 김장교 김종숙<br>김진경 김진만 서광진 서수경<br>신치선 함평대동교회<br>11만원 유선미<br>22만원 상낙표<br>100만원 이레장학 |
| 1만원 강삼미 강순성 강애슬 강옥경<br>강은혜 강재현 강정민 강정희<br>강주옥 강춘자 고대운 곽미화<br>구보길 구세경 구진경 권명순<br>권순길 권순실 권순웅 권솔기<br>권유철 권정인 권희조 금동욱<br>금필규 김가영 김도훈 김동완<br>김두환 김명화 김명희 김무엘<br>김민정 김민음 김병렬 김선근<br>김세현 김소영 김수연 김순녀<br>김순덕 김순화 김승훈 김승희<br>김예진 김요셉 김유미 김유현<br>김은경 김은석 김은주 김은천<br>김은혜 김은혜 김은환 김일준<br>김재한 김재현 김정희 김진숙<br>김진영 김춘덕 김태용 김하은<br>김하나 김현정 김현진 김희서<br>나선영 남범수 남성휘 노명민<br>노하나 노 만 류요한 류하나<br>류희정 맹현진 문성령 문수란<br>문정혜 문홍철 박경수 박수진<br>박순임 박아론 박유복 박재숙<br>박재신 박종주 박지영 박창대<br>박창민 박향식 박형택 박혜인<br>반해빈 반해성 방지연 배은휘<br>배창경 배효순 백명희 백연옥<br>백연주 백해송 백항목 변지윤<br>서규원 서성식 서유미 서 응<br>서지혜 서 현 서희영 손명배<br>손영화 손진규 송순덕 송향숙<br>송현미 신경자 신대민 신미선<br>신연정 신영옥 신은혜 신지은<br>신혜영 심두원 심인자 심희남<br>안현정 양은숙 양혜영 임미자 | 3만원 고은영 공복순 권서영 권오규<br>권은지 김윤정 김은선 김재임<br>민승철 박기혁 박문용 반세호<br>서성숙 설보경 성인선 손순현<br>우종업 윤문순 이길순 이다윤<br>이성은 이안나 이윤선 이주연<br>이현지 임연식 장영훈 전지혜<br>정슬기 조서윤 차주엽 최소린<br>최양서 탁현정 황영숙<br>좋은교회   | 재학생 및 가족<br>5천원 박윤경<br>1만원 권명희 김민서 김선경 김은주<br>김혜미 나예린 양은성 윤예원<br>이동기 이마숙 이상란 이연선<br>이혜정 임동화 장연정 전개화<br>지중배<br>2만원 강현중 곽은혜 권영진 권윤주<br>김미옥 김선미 김선옥 김은희<br>김지영 김지혜 김창환 김현정<br>김효선 박명규 박혜신 백순옥<br>송동식 송세희 신동숙 연성희<br>오명이 이경민 이미영 이승진<br>이승찬 이은영 이해봉 장영순<br>장은정 전옥순 정인숙 정혜숙<br>조복임 조윌이 지은영 최경애<br>최영숙 최창호 함은애 황미숙   |   |  |
| 1만5천원 이예람  | 4만원 박주은 배정환 신은진   | 3만원 박미영 박보병 배정숙 송의택  |   |  |
| 2만원 고성호 곽지윤 구연민 국소영  | 5만원 강경옥 권민지 김기숙 김준오<br>김 진 남영란 남희경 박광필<br>박인수 서명주 송복순 신상춘   | 4만원 박은영<br>5만원 권오길 박선희 손미연 안종현   |   |  |

| 기부자 명단               |     |                        |                              |                 |                 |
|----------------------|-----|------------------------|------------------------------|-----------------|-----------------|
| 이재현 정주화              | 5만원 | 김선화 박연희 신영자 이인경        | 3만원                          | 태광성서교회 푸른동산교회   |                 |
| 10만원 김승례 박은정         |     | 이지연 차도영                | 5만원                          | 월계성서교회          |                 |
| 30만원 박지홍             |     | 10만원 권정아 박빛나 장수진 조지선   | 10만원                         | 다빛교회 삼일성서교회     |                 |
| <b>교직원 및 가족</b>      |     |                        |                              |                 |                 |
| 1만원 강신애 곽하나 권관희 김미영  |     | 15만원 김화영 지주나           | <b>수원교회</b>                  |                 |                 |
| 김상일 김선준 김세미 김세진      |     | 20만원 김신덕               | 1만원                          | 강동형 김일섭 정유광 홍성호 |                 |
| 김애란 김유진 김종현 김지환      |     | 35만원 오동준               | 2만원                          | 반요셉             |                 |
| 김지효 김춘하 김형중 류은미      |     | <b>어진양교회</b>           |                              |                 |                 |
| 박남일 박덕자 박명우 박모서      |     | 1만원 이상규                | 1만원                          | 김정희             |                 |
| 박연지 박주양 반우형 서광철      |     | 5만원 권선제일교회             | 2만원                          | 한지화             |                 |
| 양승원 유성준 윤명섭 이문자      |     | <b>동광교회</b>            |                              |                 |                 |
| 이은영 이정은 장경순 전광선      |     | 1만원 김복례 한미희 배 윤 김현진    | 3만원                          | 임윤창 어린양교회       |                 |
| 전귀선 지수빈 허윤민          |     | <b>밀알교회</b>            |                              |                 |                 |
| 요시다고소 하늘사랑           |     | 1만원 서효정                | 1만원                          | 손미희             |                 |
| 2만원 강민경 강승현 고진주 권민주  |     | <b>삼일성서교회</b>          |                              |                 |                 |
| 권서후 김남준 김세원 김장호      |     | 1만원 김초롱 오성근 정혜란 한금순    | 4만원                          | 권정숙             |                 |
| 문지예 민경은 박은주 박태용      |     | <b>서문교회</b>            |                              |                 |                 |
| 배민정 안 호 오철송 유성현      |     | 1만원 강선애 박경자 윤인호        | 5만원                          | 장자교회            |                 |
| 장길정 장지순 전영호 정순애      |     | 1만5천원 정찬수              | <b>주향교회</b>                  |                 |                 |
| 정은상 조철남 최난영 한상만      |     | 20만원 서문교회              | 1만원                          | 유병우             |                 |
| 한정숙                  |     | <b>성서대학교교회</b>         |                              |                 |                 |
| 3만원 권오섭 김창현 방진희 신재윤  |     | 3천원 박용숙                | 1만원                          | 김세현 김정희 이승학 이태학 |                 |
| 양희정 여진희 유수연 윤혜진      |     | 9천원 강유진 박규상 김은미 이 천    | 최영란                          | 2만원             | 강영애 신한성 신영옥 이수병 |
| 이소연 정지용 추연진          |     | 1만원 강경혜 오경원 이가은 이대영    | 2만원                          | 이준구 안춘자         |                 |
| 4만원 김덕원              |     | 이대한 이정철 이지수 이진호        | 3만원                          | 권순호 김덕규 오근수     |                 |
| 5만원 구광면 김미숙 김병수 김성호  |     | 고경숙 고나경 고미숙 김결일        | 5만원                          | 김옥자 이경식 한금례     |                 |
| 김원빈 김현동 신지수 양단아      |     | 김덕현 김동석 김문정 김배열        | <b>중앙성서교회</b>                |                 |                 |
| 유미나 이상일 장정순          |     | 김성은A 김성진B 김성철 김애숙      | 10만원                         | 김용철 김윤규 송인숙 현희철 |                 |
| 6만원 권순범              |     | 김유미 김일선B 김지윤 김진철       | <b>중앙성서교회</b>                |                 |                 |
| 7만원 임환석              |     | 김현미 김희자 김희현 박영숙        | 12만원                         | 황인돈 김순자         |                 |
| 10만원 강정원 고미숙 박규상 김덕현 |     | 박영신 박은선 박인숙 박주형        | 15만원                         | 이혜선             |                 |
| 김도경 김성경 김소희 김승호      |     | 박태수 서영우 서 훈 석경순        | 24만원                         | 중앙성서교회 구제위원회    |                 |
| 김정숙 김주아 김태규 김현광      |     | 송형기 안봉숙 오종철 윤도진        | <b>퇴계원제일교회</b>               |                 |                 |
| 김현욱 김희미 문무열 박성환      |     | 윤재필 이관영 이무현 이봉호        | 1만원                          | 유재란             |                 |
| 배진형 신금주 안창선 안현미      |     | 이소정 이영진 이영희 이정숙        | 10만원                         | 퇴계원제일교회         |                 |
| 오은주 원영희 유정선 이성아      |     | 이정자 이종욱 이주현 장근문        | <b>평화교회</b>                  |                 |                 |
| 이소정 이슬기 장성희 장인순      |     | 장기영 장진희 장홍림 전옥순        | 1만원                          | 안종민 안지선         |                 |
| 조현진 조혜경 최사랑 최영태      |     | 정선희 정애진 조영희 조정선        | <b>풍암교회</b>                  |                 |                 |
| 최옥열 최은희 현우석 홍소윤      |     | 최영태 최용석 최인숙 하은희        | 1만원                          | 윤은정             |                 |
| 김정원(신) 김정원(영)        |     | 한성실 한충현 허진순            | <b>함평대동교회</b>                |                 |                 |
| 11만원 최지은             |     | 2만7천원 김영현              | 1만원                          | 김희경             |                 |
| 13만원 김중완 한진호         |     | 3만6천원 강규성 김민자 김민아 박 선  | <b>효성교회</b>                  |                 |                 |
| 15만원 강규성 권경만 김은호 김희수 |     | 반해빈 반해성 방미경 유중엽        | 1만원                          | 진경숙 진은숙 진효숙     |                 |
| 안정선 이한영              |     | 이경신                    | <b>일 반</b>                   |                 |                 |
| 20만원 김승욱 김창원 박 선 박태수 |     | 4만5천원 권경만 김순옥 김영자 노봉환  | 1만원                          | 구필례 권승영 권창석 김기수 |                 |
| 정해덕 정취진              |     | 박은경 유형창 이정숙C 임성일       | 김동우 김명호 김미라 김법실              | 김양권 김유벽 김은경 김인호 |                 |
| 25만원 이강동 임지영         |     | 5만4천원 김유미A 김현석 박진석 반세호 | 김천수 노은경 문혜영 박미숙              | 박영미 박영희 박지성 박해숙 |                 |
| 35만원 최선희             |     | 송재철 이숙영 최선희            | 서민석 송수용 안애숙 오미라              | 오미선 오지혜 오현숙 유금례 |                 |
| 133만원 강우정.강 진        |     | 7만2천원 김상은              | 유화실 윤수현 윤준영                  | 이관현 이민우 이사랑 이성영 |                 |
| 350만원 최정권            |     | 9만원 강성훈 김홍희 김원태 박세건    | 이성태 이성희 이우윤 이원주              | 이유진 이현수 임숙자 조동빈 |                 |
| 1020만원 조윤경           |     | 박은유 이은실 이정미 최강희        | 조목장 조언상 조여원 조은혜              | 진윤승 최경숙 최범식 최서영 |                 |
| <b>부설기관</b>          |     |                        |                              |                 |                 |
| 1만원 김옥준 김은지 김지은 김효진  |     | 13만5천원 박은오             | 최은실 한춘경 황영수 위샬러두             |                 |                 |
| 임재택                  |     | 18만원 전명진 허에스더          | <b>소계(20240521~20240620)</b> |                 |                 |
| 2만원 진양희              |     | 21만6천원 박정훈             | 177,172,469                  |                 |                 |
| 3만원 권효진 문유나 박천순 변승이  |     | 1896만원 성서대학교교회         | <b>누계(20240301~20240620)</b> |                 |                 |
| 인미희 유정현 장나혜          |     | 2만원 금촌성서교회             | 367,242,960                  |                 |                 |

한국성서대학교 6월 『발전후원금』  
일반(일시불) 후원자 (27,068,057)

조윤경(교직원) 10,000,000 / 한국성서선교회(동문) 10,000,000 / 강우정 (교직원) 5,848,057 / 김인화(동문) 500,000  
이은선(일반) 500,000 / 성낙표(동문) 200,000 / 김효선(재학생) 15,000 / 김서연(재학생) 5,000

약정 후원자 (합계 29 구좌 연간 납입예정액 3,420,000원)

20구좌 성낙표(동문) / 5구좌 한일성서교회(동문) / 3구좌 차주엽(동문) / 0.5구좌 박윤경(재학생)

일시납 누계(3.1~6.22) 59,867,563원 약정자 누계 (3.1~6.22) 58구좌 연간 납입예정액 6,960,000원